

지역의 녹색성장 전략, 생태관광¹⁾

강 미 희²⁾

영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들어가는 글

“기후를 염두에 둔 여행”(“Traveling with Climate in Mind”) - 국제생태관광협회(The 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가 최근 창도하고 있는 캠페인 제목이다. 우리 정부가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관광산업부문에서도 빗겨갈 수 없는 도전과제이자 추구해야 할 비전이다. 그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저탄소관광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진지한 논의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사실 오랫동안 관광은 무공해산업이면서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산업으로 평가되어왔다. 1950년에 2천5백만 명이던 세계 관광객 수가 2005년부터는 8억 명을 훌쩍 넘어섰고 2020년에는 15억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50년간 관광객 수가 28배 증가한 반면 관광객의 지출한 총금액은 240배 증가했는데, 관광시장 규모를 한 국가로 가정한다면 세계 제2대 경제대국이 될 정도로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단하다.

하지만 굴뚝 없는 관광산업도 녹색성장을 담보하지 못한다. 무분별한 자연자원의 훼손, 고유문화의 상실, 경제적 편익의 누수, 지역

주민의 소외와 삶의 질 저하...관광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자연과 문화 자원을 매개로 성장하는 관광산업에 급제동을 걸기에 충분하였다. 더욱이 기후변화와 같이 현대인류가 맞닥뜨린 환경위기는 관광산업에도 엄청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예컨대, 지중해 연안이나 북유럽의 스키장처럼 기후조건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관광지의 경우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시점이다.

생태관광은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실행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잘 보전된 자연지역으로의 제한되고 통제된 이용, 지역사회 주도의 그리고 지역산물을 이용한 소규모 개발, 수요자 공급자 모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이해당사자들의 자발적 행동강령과 협력체계 등등 개발과 관리 전반에 걸친 생태관광 원칙들이 녹색성장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많은 사례들을 통해 검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9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생태관광에 쏟아지는 세계의 관심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태관광이라는 용어는 '90년대 초부터 회자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의미있는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2~3년에 불과하다. 그럼

1)Ecotourism, Strategy for Green Growth of Local Community

2)KANG, Mihee, Department of Forest Resources, Yeongnam University, Gyeongbuk, Korea,

E-mail: miheekang@gmail.com

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기간 동안 전국의 많은 곳에서 생태관광이라는 간판을 내건 관광개발사업들이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생태관광 개발사업들이 녹색성장을 보장하는 것인가에는 의문이 든다. 지역의 청정자원을 내세우며 너나없이 생태관광 최적지임을 이야기한다. 자원 그자체로만 따진다면 우리나라 어느 자연지역이 생태관광지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뒤따라 진행되는 개발의 모습은 널찍한 도로와 주차장, 자연과 조화되지 않는 대형 숙박시설, 그리고 지역적 독특성과 차별성이 반영되지 않은 그러한 관광시설의 도입이다. 그나마 프로그램은 부재된 경우가 허다하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배제되고 지역의 환경훼손은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이 모든 것이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서해안 갯벌, 우리 땅의 즐기 백두대간, 이들 지역처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곳에 관광객이 오게끔 문을 열어두는 것이 생태관광인 것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생태관광은 단순히 자연지역을 방문하는 것과 다르다. 훼손되지 않은 자원을 관광매력물로 개발하되 지역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수용력에 기반하여 개발규모를 산정하고, 개발과 운영관리 전 과정이 환경관리 시스템 하에서 모니터링되도록 하면서, 자연과 문화를 즐기고 배우고 존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경제적 지속성을 보장할 때 우리는 이것을 생태관광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카리브 해의 도미니카공화국을 방문하는 생태관광객이 소규모의 자연친화적인 숙박시설에 머물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크루즈관광객과 비교하였을 때 18배가 넘는다. 적은 수의 생태관광객이 대량의 대중관광객(mass tourist)이 지출하는 비용의 합계보다 더 큰 경제적 편익을 남기면서도 환경

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대중관광시장이 생태관광이라는 포장을 입고 있는 그야말로 ‘무늬만 생태관광’인 척 하고 있는 꼴이다.

우리나라의 초기 생태관광은 시민단체들의 생태체험 형태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생태체험의 단계를 뛰어넘어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역할 하는 데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산업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생태관광사업을 운영하던 소수 영세 사업자들의 실패는 예견된 결과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생태관광을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몇 가지 정부사업들이 생태관광의 오·남용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만든다. 실제 성공여부는 아직 단언할 수 없지만 한국형 생태관광모델 사업이나 인증제도의 개발 등이 특히 그러하다.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도 모범사례로 들 수 있다. 이 모든 일들이 아직 시작단계이므로, 지속적으로 원칙에 충실 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지원이 요구된다.

생태관광의 개념과 특성

생태관광의 태동

1965년 Hetzer가 ‘Links’라는 잡지에 관광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비평하는 글을 기고하면서 그 대안으로 “생태적 관광(ecological tourism)”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을 생태관광에 대한 첫 번째 언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ecotourism”이라는 용어는 멕시코 도시개발생태부 표준기술국의 국장이면서 환경단체(PRONATURA)의 대표이었던 세바요스 라스쿠라인(Ceballos Lascurain)이 1983년 초에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다. 그는 미국홍학(American Flamingo)을 비롯한 많은 철새들이 겨울 동안 찾는 멕시코 유카탄 북부의 Celestn 강 하구의 마리나(marina) 개발을 막기 위해 환경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관광 개발을 제안했다.

1990년대를 전후해서 많은 학자들과 국제기구에서 생태관광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국가간 학자간 합의된 정의는 없다. 그러나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국제생태관광협회(TIES: The 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가 내린 것으로, 생태관광은 “자연자원의 보전이 곧 지역주민의 편익이 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의미 있는 여행”으로 정의된다.

개발접근시각과 환경접근시각에서의 생태관광 정의

생태관광은 지역주민(공급자) 입장 혹은 관광객(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다소 상이한 정의가 가능하다. 개발접근시각(development perspectives)에서 생태관광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 방안의 하나로 정의된다. 즉 생태관광 대상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원에 대한 권한위임”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자원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전하는 동시에 생태관광을 통해 경제적 편익을 취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환경접근시각(environmental perspectives)은 생태관광의 환경교육요소를 통한 관광객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 나아가 지속적인 자연보전활동참여 등 자연환경보전을 보장하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측면을 강조한다. 즉, 생태관광객이 환경교

육을 통해 자연을 감상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접함으로써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생태관광지 환경 보전에 기여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환경접근시각은 지역활성화 전략으로서의 생태관광보다는 환경의 보전과 자연에 대한 질적인 경험을 생태관광의 진정한 측면으로 강조하는 시각이다.

대안관광으로서의 생태관광

생태관광은 대안적 관광(alternative tourism)의 한 형태로, 지속가능관광(sustainable tourism)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실행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안적 관광은 대중관광(mass tourism)이 야기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들을 지각하고 이들 부정적인 영향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질적인 관광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생태관광은 혁신적이거나 새롭게 출현한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개념으로부터 진보된 것이다. 생태관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은 이미 야외휴양(outdoor recreation)이나 모험관광(adventure tourism) 등에서 오래 전부터 제공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언급되는 생태관광은 양질의 여행경험 제공 측면을 넘어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우려에서 발생한 관심의 융합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관광객 자신들이 자연환경에 가할 수 있는 생태학적 손상과 원생지(wilderness)의 가치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삶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지역주민의 희생만으로는 자연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점차 인식되고 있으며 또 지역주민에게만 보전의 의무를 떠맡기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 아니라는 데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적극적 참여활동으로서의 생태관광

생태관광은 대상지의 자연과 문화를 보전하고 유지하는 데 공헌하는 “적극적인 참여”로 표현되며, 환경 교육적 혹은 해설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참여자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시킴은 물론 관광객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시도한다.

또한 생태관광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면서 지역에 기반을 둔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적 발전을 꾀하되 환경보전의 가치와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는 수요중심의 개발이 아닌 공급중심(지역의 자원과 역량에 기초한 공급량의 설정)의 개발을 의미하며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목표가 통합적으로 달성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생태관광 발전 추세 및 국내외 주요동향

시장점유율

자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중 특화된 형태인 생태관광은 이미 세계 여행시장의 5~1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10~15%씩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기존의 혼잡하고 일률적인 관광 경험에서 벗어나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보다 의미 있고 교육적인 경험을 얻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기인한다.

진전한 환경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관광산업의 지속성이 보장되기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관광객을 위해서” 혹은 “관광객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관광객에 의해서” 환경이 지켜지는 시대이다.

독일인 관광객의 42%가 친환경적인 숙박시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영국, 호

주, 미국 관광객의 70% 정도는 책임 있는 환경태도를 가진 호텔에 숙박하기 위해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다. 또 영국인 관광객의 거의 50%, 미국인 관광객의 30% 이상이 환경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회사의 여행상품을 구매하고자 한다. 환경의 질이 곧 경험의 질로 연결되는 것이다.

2002년 UN이 정한 ‘세계생태관광의 해’

유엔은 생태관광의 세계적인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8년 7월 유엔총회에서 2002년을 ‘세계 생태관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Ecotourism, IYE)로 지정하였다. 이후 유엔의 지속가능개발위원회는 국제기구, 정부, 민간부문이 이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세계관광기구(WT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세계 생태관광의 해 동안 국제적으로 수행되는 활동들을 준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1년 3월 모잠비크에서 “아프리카 생태관광의 계획, 개발, 그리고 관리”라는 주제로 첫 지역 세미나가 개최된 이후 18차례의 생태관광 관련 지역회의와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호주에서는 지속적으로 생태관광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2002년 5월 19~22일에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세계생태관광대회’(World Ecotourism Summit, WES)는 생태관광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생태관광의 중요성과 가능성 또한 관련이슈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였다. 132개국에서 천 명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WES는 「생태관광에 대한 퀘벡선언」(Quebec Declaration on Ecotourism)을 마련함으로써, 대회기간 동안의 논의를 한 곳에 모았다.

우리나라도 2002년 4월 제주도에서 ‘한국의 생태관광 발전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계생태관광의 해 기념포럼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문화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관광업계, 학계 등으로부터 160여 명이 모여 생태관광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생태관광의 올바른 정착과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비단 2002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세계 곳곳에서 생태관광을 주제로 한 다양한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하더라도 5월에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이 생태관광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그리고 7월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세계생태관광컨퍼런스가 세계관광기구 주최로 개최되었고, 9월에는 국제생태관광협회 주최의 생태관광과 지속가능관광 컨퍼런스가 미국에서 개최되고, 일본에서 개최되는 APEC회의기간 중에 생태관광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이다.

국내외 생태관광협회의 설립과 활동

1990년 국제생태관광협회(TIES)가 세계 최초로 협회로 출범한 데 이어 많은 나라에서도 대륙간 협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미 지난 1998년 4월 1일에 일본생태관광협회(Japan Ecotourism Society, JES)가 설립되어 생태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태숙박시설(에코랏지)협회가 결성되어 생태관광의 주요 매력물인 숙박시설의 생태적 건축과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초기부터 논의된 협회 설립이 2010년 5월 비로소 이루어져서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생태관광협회가 설립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협회들의 활동을 연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생태관광협회(APES, Asia Pacific Ecotourism Society)가 세계관광기구의 정식인가를 거쳐 2009년에 발족되었다.

세계생태관광컨퍼런스

2009년 부탄에서 제1회 세계생태관광컨퍼런스(World Ecotourism Conference)가 개최된 이래 올해 말레이시아에서 제2회 생태관광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가 세계관광기구가 주최하는 공식적인 국제컨퍼런스이다. 세계생태관광컨퍼런스의 부속 행사로 아시아태평양생태관광협회가 주최하는 워크숍 역시 매년 개최되게 된다.

공식 생태관광 국제컨퍼런스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국가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2011년 제3회 개최지는 스리랑카가 가장 유력시 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생태관광 인식과 생태관광 개발 현황

생태관광 용어의 언론 노출 검색

생태관광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회자되고 있는지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0여 년간을 검색해보면, 1998년도에 언론매체에 21회 노출되었던 ‘생태관광’ 용어는 2004년도에 일부 감소된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증대되어 2009년에는 1,846회 언급되었는데 십여 년이 사이에 무려 88배 노출빈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언론노출빈도의 변화는 생태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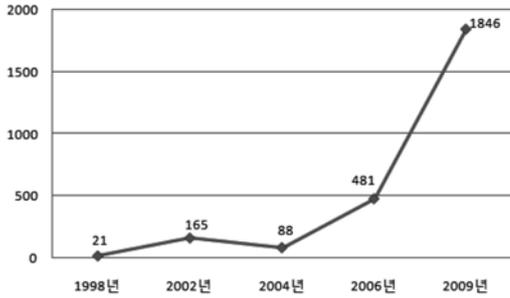


그림 1. '생태관광' 용어의 연도별 언론노출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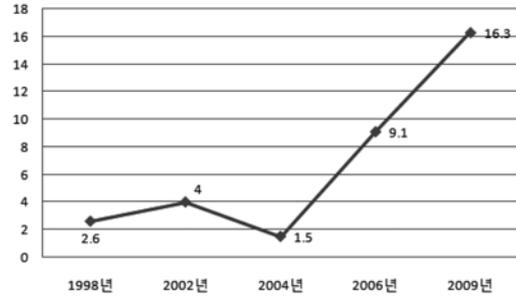


그림 3. 생태관광 참여경험을 변화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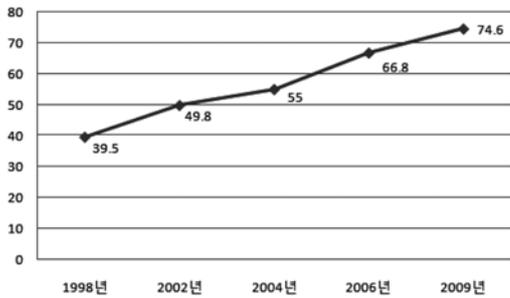


그림 2. 생태관광인지도 변화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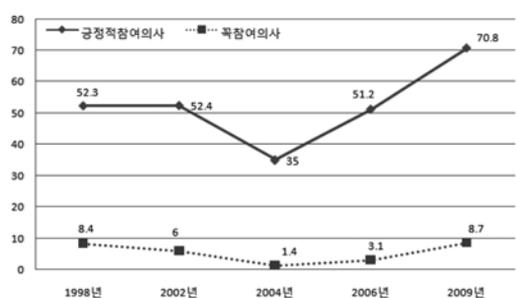


그림 4. 생태관광 참여의사 변화추세.

국민의 생태관광 인지도

전국민 표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생태관광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약 67%, 그리고 2009년에는 약 75%까지 증가하였다. 즉 생태관광의 개념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떠나 생태관광이라는 용어 자체는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생태관광 참여율과 잠재수요

우리 국민들이 생태관광 및 유사한 관광(전문가 또는 전문해설가 동반 철새관광 등)에 참여한 경험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

한 결과를 보면, 역시 1998년 이후 2004년¹⁾ 일시적인 감소를 보였으나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가까운 미래에 생태관광에 참여할 의도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 따르면, 50% 수준에 계속 그치고 있어 인지도와 경험율이 증대된 것과 달리 현시수요로 나타날 가능성이 증가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꼭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오히려 낮아져 생태관광에 대한 수요를 현시수요로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의 강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현황

199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및 생

¹⁾우리나라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 자연기반관광지의 방문량이 2004년도에 모두 감소하였음. 생태관광시장에서만 나타난 특별한 현상이라기보다 경기침체에 따라 자연기반관광지로의 장거리이동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서천군의 비인만갯벌도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문제는 이들 사업들이 생태관광 혹은 녹색관광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2006년까지 진행된 총 24개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7개 사업만이 우수 및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는데²⁾,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단순히 진입로 정비 등의 사업들이 이루어진 곳들은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많은 곳에서 ‘생태관광’이라는 명목 하에 다양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생태관광 시장군수 협의회」가 2009년 4월 결성되었는데, 순천시, 강화군, 화천군, 옥천군, 태안군, 문경시, 창녕군, 진안군, 구례군, 서귀포시 등 총 10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생태관광 상품개발 현황

생태관광은 산업과 연계되고 그를 통한 경제적 편익창출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값싼 관광시장에서 생태관광이 하나의 고급상품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90년대에 생태관광상품을 개발, 판매하던 여행사들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최근 일부 여행사가 ‘공정여행’ 혹은 ‘책임 있는 여행’을 내세우며 차별화된 대안관광상품을 내놓는 가 하면, 생태관광 상품을 자연관광상품과 더불어 개발 판매하는 여행사들도 일부 있다.

자연관광이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는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면, 생태관광으로 특화된 여행사는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수준이다.

한편 지금까지 생태관광상품은 주로 지방

자치단체 주도로 혹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또 비영리를 추구하는 시민(환경)단체에서 제공해왔으므로 시장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나마 제주지역의 일부 생태관광 전문여행사들이 최근 수익을 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들은 철저하게 차별화된 생태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제공해온 사업체들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생태관광프로그램은 관광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인식의 증대와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고급화 및 실제 상품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는 국립공원 주변 지역사회와 연계한 상품들을 코레일과 연계하여 판매하는 등 지역사회에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태관광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하여 자료 확보 용역을 발주하였다. 여행사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들을 대상을 이루어지는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생태관광 현황이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생태관광 관련법

우리나라 생태관광 관련법

자연환경보전법이 법률상에 처음으로 생태관광이라는 용어를 포함하였는데, 제 41조(생태관광의 육성)에 생태관광에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관광’으로 생태관광을 정의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해양생태관광의 육성)에서는 생태관광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관광을 해양생태관광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습지보전법 시행령 19조

²⁾비인만 갯벌체험 관광마을 조성은 서류평가 5위, 현장평가 3위를 기록함

의 2(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산림청의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등에 생태관광이 명시되어 관계부처가 생태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제46조에 근거해 2000년부터 생태관광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광이 언급된 법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들의 지원 및 수산업 발전 특별법 제18조, 연안관리법 제9조 등이 있다.

국내 관련법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생태관광 관련법들이 생태관광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거나 관련된 의미를 제시하고 있으나 다양한 문제점들 또한 여전히 포함하고 있다. 첫째, 생태관광 용어의 정의가 너무 환경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생태관광이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경제적 지속성은 간과되어 있다. 둘째, 생태관광 정책 부서가 명확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가 없고 구체적인 지원체계가 없다는 점이다. 셋째, 생태관광 용어를 포함할 뿐 생태관광의 중요성과 발전의 의미는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민간과 공공분야 그리고 전문가의 역할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외 생태관광 관련법 사례

외국에서 생태관광 관련 법률을 보면, 일본에서는 이미 2007년에 생태관광추진법을 제정하였고 필리핀은 2008년 제안하여 상원에 계류중인 국가생태관광정책법(National Ecotourism Policy Act)이 있다. 이때 일본의 생태관광추진법은 단순한 자연지역방문과 생태관광을 구분하고 관광활동으로 인한 환경

의 훼손을 막음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관광진흥과 지역진흥을 도모하고 국민들에게 환경체험과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이 법률에 의해서 일본정부는 생태관광 추진의 기본방향을 정해야만 하고, 생태관광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생태관광추진협의회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와 지역의 정책적 연계 그리고 생태관광 개념에 부합하는 개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 및 규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호주 정부는 생태관광만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갖고 있지 않지만 이미 1994년에 생태관광국가전략(National Ecotourism Strategy)을 수립하여 호주 나름의 생태관광의 개념을 정의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원칙과 실행을 관광산업 전반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포함해 총 12가지의 목표를 수립하였다. 또 현재는 크게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통해 대외적으로 호주의 생태관광을 알리는 전략을 실행중에 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www.australia.com)를 통해 여행동기별 그리고 대상지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해외시장에 호주의 생태관광 및 자연관광 경험을 판매하고 있다(<http://www.tourism.australia.com>).

호주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주 정부나 시정부에서도 생태관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퀸즈랜드 주 정부는 1997년에 “퀸즈랜드 생태관광 계획(Queensland Ecotourism Plan)”을 수립하였으며, 최근 “Queensland Ecotourism Plan 2003-2008”을 새로 수립하여 이전에 수립된 생태관광계획에서 제시된 생태관광의 비전과 정의를 새롭게 하였다. 퀸즈랜드 주 정부는 지속적인 관광객 조사를 통해 그들의 프로파일과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중심으로 관광시장을 세분화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한편 시차원의 사례로는 타운스빌(Townsville) 시가 수립한 생태관광 전략(Townsville Ecotourism Strategy 2000)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생태관광

우리 정부는 2009년에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였는데, 그중 관광분야에 해당하는 것이 MICE산업과 생태관광이다. 즉, 생태관광이 환경보전이라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에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성장동력산업이 되기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이 제시되지 아쉬움이 있다.

녹색성장 실행전략으로서의 생태관광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5개년(2009~2013년) 국가전략을 수립하였다. 생태관광은 ‘생활의 녹색혁명’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포함되어 있다. 생태관광 모델사업의 실시, 인증제도의 개발 시행, 전문 에코가이드 양성 등이 세부 실천사업으로 제시되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사업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겨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형 10대 생태관광모델사업지가 선정되고 기본계획수립 단계에 들어가 있으며, 생태관광 인증을 위한 준비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생태관광 시범사업

2009년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화천과 양구 DMZ 지역과 창녕군 우포늪을 대상으로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 시범연구를 실시하였다. 이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녹색성장위원회로 통합 조정되면서, 환경부

가 사업을 이어받아 시범연구를 종료하였다.

DMZ와 우포늪에서 수행된 시범사업은 타 생태관광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어떻게 생태관광 개발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한국형 10대 생태관광모델사업

환경부와 문화부는 공동으로 한국적 특성이 담긴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고유의 생태관광을 개발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모델을 제시하고자 자원별 유형을 고려하여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모델사업 대상지는 자연의 보전가치, 관광자원의 매력도, 지역주민 참여도 등 6개 지표의 15개 세부지표를 적용하고 환경보전, 관광, 홍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10.2.23)를 거쳐 한국형 생태관광 세계화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모델사업지는 경남 창녕군 우포늪(내륙습지), 전남 순천시 순천만(연안습지), 강원 화천군(DMZ), 경기 파주시(DMZ), 충남 서산시 천수만(철새도래지), 경북 영주시 소백산 자락길(산/강), 전북 진안군 데미샘과 고원마실길(산/강), 제주도 거문오름과 서귀포생물권보전지역(섬), 충남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사구), 강원 평창군 백령동굴과 동강(동굴/화석) 등이다.

정부는 선정된 대상지의 생태자원의 보전, 인프라 조성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2013년까지 지속할 계획에 있다. 또 효과적인 추진전략 수립 및 예산집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사업지역에 대한 자문 및 진행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생태관광컨설팅단”을 운영중에 있다.

생태관광인증제도

생태관광 인증제도는 환경보호전략의 하나이다. 이미 호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인증제도를 개발, 시행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경우 1993년에 인증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계획을 구상하여, 1996년 11월 세계 최초로 생태관광 인증계획을 세웠다. 또한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생태관광을 인증하기 위한 기준으로 자국의 기준을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2001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관광 행동강령(code of conduct), 라벨(label), 상(awards), 벤치마킹(benchmarking), 우수사례 발굴(best practices) 등 250여개의 자발적인 실천행동(voluntary initiatives)이 있으며, 이들 중 약 100여 개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우수한 관광실행을 표명하기 위해 고안된 로고(logo), 승인표(seal of approval), 상(awards) 등을 제공하는 에코라벨링(ecolabeling) 또는 관련인증프로그램이다(Honey and Rome, 2001; UNWTO, 2001).

UNWTO의 지원으로 조사를 실시한 ECOTRANS는 친환경관광 및 생태관광인증 프로그램에 대해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CESD³⁾, Rainforest Alliance and The 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 2009). 1992년 ‘리우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이후 2002년이 ‘세계 생태관광의 해’로 지정된 시기를 거치면서 2007년까지 80개 정도의 프로그램들이 환경 관련하여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에 있다. 그러나 조사된 80개의 프로그램 중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으며, 생태관광과 관련된 것은 3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유

렵에서 개발, 적용되는 것들이며,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인증제도는 5%에 불과하다는 결과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에 생태관광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조사를 끝내고, 2010년에는 상세 지표와 기준 개발을 위해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빠르면 2011년부터는 시범인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있다.

각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생태관광을 내건 개발을 방지하고 생태관광 원칙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생태관광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생태관광포럼

환경부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실천사업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2010년에 4월에 정책분야와 홍보마케팅분야 등 2개 분야로 구성된 생태관광포럼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다.

참여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하는 생태관광 정책을 논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토의하고 있다.

맺음글 -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통한 환경적 지속성과 이해당사자간 역할분담과 협력체계구축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가 명확한 비전과 전략의 수립이다. 생태관광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들이 제시되었고 또 실행에 옮겨지고 있지만 실제

³⁾CEST는 Center for Ecotourism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약자이며, 현재는 Center for Responsible Travel(CREST)로 명칭을 변경함(<http://www.responsibletravel.org/home/index.html> 참고)

로 국가적 차원에서 명확한 또는 공유된 비전이나 전략은 수립된 바 없다. 또 그에 따라 실행주체를 명확히 해야 하지만 지금은 관련된 부처가 너나 할 것 없이 중복된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적 합의와 추진의지 없이는 늘 제자리걸음만 되풀이할 뿐이다. 정책적 실행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법률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일단 제도적 기반구축이 마련되고 나면 어떻게 생태관광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도달한다.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인증프로그램이다. 인증프로그램은 개발과 운영관리의 모범들을 마련하고 제시된 지표와 기준을 생태관광 공급자들(예컨대 지역사회, 생태관광기업, 또는 에코가이드 등)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충족시켰을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시장점유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다행히 생태관광 인증제도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 과제는 해결중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제 구축된 기반과 수요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의 과제가 남는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우리 국민의 수가 2007년 기준으로 1,300만 명에 달하고 그들이 해외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16조원이 넘는다. 이 수요를 어떻게 생태관광과 연결하여 국내 녹색성장을 견인해 낼 것인가? 국내여행지의 볼거리와 내용이 해외여행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게 그들의 평가다.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의식이 생태관광 수요로 연결되기에는 성숙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필자가 호주, 미국, 유럽,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의 관광객들과 우리나라 관광객의 여행태도를 비교해본 결과 우리나라의 관광객이 다른 나라의 관광객들보다 여행하는 곳의 자연과 문화를 보다 책임 있게

즐기고 배우고자 하는 가장 좋은 태도를 보였다. 결국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은 650여만 명으로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수의 절반정도지만 국내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우리가 해외에서 지출하는 비용의 1/3 수준에 머무른다. 이 결과 역시 우리가 추구하는 녹색성장과는 상반되는 현실이다.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이든 우리나라 관광객이든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품질의 문제인 것이다.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자원이 가진 소중함을 간과할 때가 많다. 세계 어느 곳에 내 놓아도 절대 뒤지지 않을 우리의 자연자원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환경위기에서 스리랑카는 ‘Carbon Clean Sri Lanka’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친환경관광실행을 천명하였다.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등도 일찌감치 생태관광시장을 확장해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생태관광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이 이를 대변해준다. 이들 지역들과의 연계도 좋은 전략이다. 가까운 중국과 일본은 물론 아시아 생태관광 네트워크 구축은 지속가능한 관광 성장을 위한 상생전략이다. 환경친화적인(eco-friendly)이고 기후친화적(climate-friendly)인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우리의 녹색성장모델이 다른 나라에 벤치마킹되길 기대해본다.

사례를 통한 생태관광 발전방향 모색

순천시, 창녕군, 진안군, 그리고 양평군의 생태관광 개발사례를 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지속성 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향후 지역의 생태관광 개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순천시 순천만

1. 환경적 지속성

순천시는 순천만의 보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중이다. 이들을 분리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순천시 전체의 구역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

우선, 순천시 전체를 5개의 구역, 즉 생태보전구역(eco-reserved zone), 완충구역(buffer zone), 전이구역(transition zone), 도시구역(urban zone), 그리고 생태경계구역(eco-edged zone)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주로 이용이 이루어지는 순천만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이용구역을 생태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관광객 수의 통제, 주차장 등의 시설 이전 등을 통해 보전중심적 관리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전이구역에는 수목원을 조성하고 2013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는데, 보통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제시하는 전이구역의 개념에서는 생활공간으로 포함되는데 비해 순천시에서는 전이구역에서도 최대

한 자연친화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어 우수한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복원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순천만과 접해 있는 토지가 흑두루미 등 철새들에게 안전한 쉼터와 먹이제공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매입 후 복원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어 기획경제부 소유의 사토장 9.9 ha를 매입하여 복원을 추진하였다.

또 순천만 인근에서 영업중이던 식당 6곳을 자연생태공원 외곽으로 이전하도록 추진하여 자연생태공원에서의 무분별한 상업행위 및 관광활동을 방지하고 철새를 탐조할 수 있는 시설로 개조하였다.

철새보호를 위한 전봇대 제거

흑두루미 등 조류의 이동에 방해요소였던 전봇대 280개를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철새서식지 조성에 기여하였다.

기타

오리농장을 이전하고 생태탐사선을 운행하는 등 순천시 주도로 순천만 일대의 시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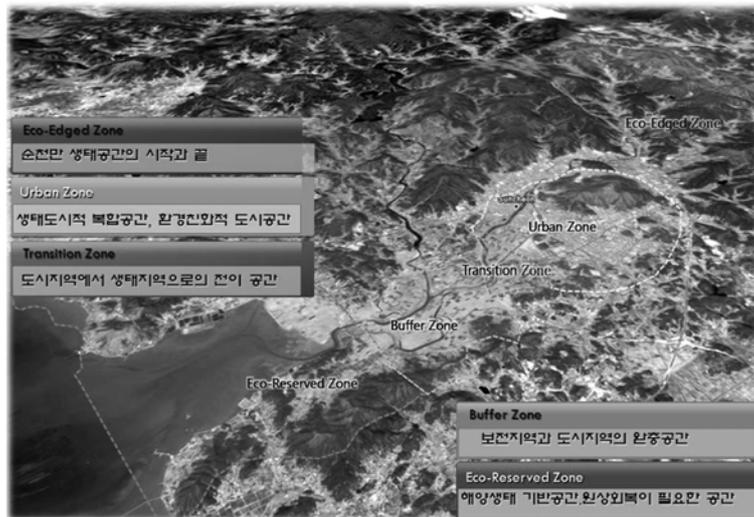


그림 5. 순천시 구역화 모식도(출처: 순천시 관광진흥과).



그림 6. 순천시 친환경성 확보 노력 (출처: 순천시 관광진흥과).



그림 7. 도입예정인 친환경경전철(PRT)
(출처: <http://www.2013expo.or.kr/>).

대한 정비와 친환경 시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적 지속성 확보를 위한 순천시 노력의 결과와 과제

이상의 활동들을 통해 흑두루미를 포함해 순천만을 찾는 겨울철새의 수가 증가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예를 들어 1996년에 70마리에 불과하는 흑두루미 수가 2009년에는 453마리로 증대되었다. 보전노력이 이룬 성

과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철새외에 순천만 자연의 전반적인 환경성 증진을 뒷받침할 과학적 연구조사가 부족하다.

또한 생태보전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인 이용은 그 구역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새롭게 경사도를 조정하여 관광객의 방문을 용이하게 한 용산전망대 탐방로, 성수기에 밭 디딜 틈 없이 짝 찬 갈대탐방로, 농로 사이를 오가는 갈대열차 등 보전지향적 정책과는 상반된 관광객 유인정책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부터는 상류 6.3 km(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부터 도보, 자전거, 소형경전철(2012년부터 시범운영), 선박 등을 이용해 순천만에 접근 가능하다. 현재의 주차장이 이곳으로 이전 설치되어 환경성을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물려드는 관광객 수에 대한 관리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2002년에 10만명에 불과하는 방문객 수가 2009년에는 233만 명으로 보고되었다.

새롭게 단장한 용산전망대(보조전망대 포함)는 순천만의 아름다움과 경관농업지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임에 틀림없지만 그

경관을 보기 위해 용산을 오르는 수많은 관광객과 그들에 대한 거의 무방비의 관리상황을 볼 때 환경적 지속성이 언제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 경제적 지속성

순천시는 순천만 갈대축제를 비롯해 탐방로 조성, 환경정화사업 등등에 지역주민의 고용을 실행하였다. 공공근로로 연간 고용하는 인원은 6,400명에 달하는데, 갈대제거로 인해 연간 창출된 일자리 수는 700여개에 달하며, 총 1억 원 정도의 소득을 발생한 보고된다(출처: 순천시 관광진흥과).

순천만에서 이루어지는 생태관광의 경제적 효과로 2009년 기준 1천 억 원으로 보고한다(출처: 순천시 관광진흥과). 2002년에 3백만원에 불과했던 경제적 효과가 약 34만 배 증가한 셈이다. 물론 이런 경제적 효과는 순천만 관광으로 인해 파생되는 효과까지 모두 고려한 것임에 틀림없다. 경제적 가치 추정의 근거는 무시하고서라도 불과 7-8년 전에 비해서 순천만의 가치가 엄청나게 증가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들이 얻는 유형의 일자리와 그에 따른 소득도 결코 적지 않은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폐로 계량할 수 있는 가치가 이후에 설명한 사회문화적 지속성과 관련된 효과와도 연계되어 비교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손실(또는 비용)이 더 크다면 1천억의 경제적 가치가 가지는 의미는 말 그대로의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 사회문화적 지속성

순천만의 사회문화적 지속성은 실제 지역사회가 순천만 생태관광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나 의견으로 평가 가능하다.

지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순천만이 지켜져왔고, 순천시의 추진정책들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현재의 순천만 생태관광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역사회가 이에 대해 가지는 태도는 과학적으로 평가된 바 없다.

생태관광에서 중요한 수용력 추정과 그에 따른 관리방안 수립은 단지 생태적 관점에서만 논의되어서만 안 된다. 생태관광은 생태환경의 지속성은 물론 그곳과 더불어 사는 지역주민들의 사회심리적(또는 사회문화적) 수용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순천시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내 일부시설을 지역주민 및 단체(예; 사)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에 위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주민들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보듯이 지역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지역사회의 책임 있고 의미 있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창녕군 우포늪

순천만 지역 대대주민들 화났다

주민들 순천만생태특수종단. 연선티브 요구

2009년 07월 04일 (토) 18:11:29 공유하기

순천만에 연결하여 살고있는 대대들 주민들은 과도한 개발로 인한 생태훼손을 규탄하고, 주민의 권리회복에 대한 인센티브지급을 요구하기 위하여 대대선학장에서 주민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갖고 있다.

발대사할대대포구사람들은 지난 8월 28일부터 오는 7월 23일까지 순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4일 오후 2시부터 대대선학장에서 주민 200여명(투산)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갖고 있다.

대대포구사람들은 그동안 4개월여에 걸쳐 ▲정방의 농로길 발대목차 운영중지, ▲차안부 농로길 복원 ▲순천만생태 특종 ▲주차장운영 ▲생태관 입장료 수입 등에 대한 이윤의 50%를 주민인센티브로 지급해 줄것을 요구해왔지만, 순천시는 이에 따른 주민 요구를 묵살하고 2012년 인포라 구축이 끝난 후 인센티브지급을 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에 반발하고 나선것이다.

순천만 생태관, 주차장, 인공 숲지, 문화관 예정지는 모두 8만평 가까이 되는 면적은 현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살아왔고 살아갈 삶의 터전이다.

주민들은 "지금 이 터전이 순천시의 관광정책 실현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버렸으며, 발대발과 것들은 본포지적으로 지경되면서 연손어업과 발대물들의 재화가 어떻게 되었고 불행 또한 아물대로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림 8. 순천만 대대주민들의 성명서 발표 관련 기사

(출처: 인터넷 조은뉴스 <http://www.egn.kr/news/articleView.html?idxno=5003>)

1. 환경적 지속성

2008년 람사르총회 이후 급격한 관심의 대상이 된 우포늪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보이는 미개발의 상태로 인해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 우포늪생태관, 전망대, 주차장 등의 일부 시설이 들어오긴 했으나 여전히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접근지점들이 많다.

과거 인공 제방을 쌓으면서 자연스러운 수량 조절이 불가능해져 홍수피해를 입기도 하고 여름철 폭우에 인명피해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환경감시원 등이 지속적으로 환경정화를 위해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지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의 자발적 조사와 지킴이 활동이 현재의 우포늪을 지켜오고 있다.

우포늪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2009년 창녕군은 '생태관광과'를 신설하여 우포늪에서의 환경업무와 관광업무가 통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순천만을 벤치마킹하여 철새에 위협이 되는 전봇대의 지하매설이나 통신사 송전탑 이전설치, 그리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양계장 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따오기복원과 연계하여 우포늪의 환경성을 가장 원시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생태관광지로 관리하기 위해 생태가이드 양성 및 고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적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초연구조사에 대한 체계적 시행, 구역화를 통한 차별화된 구역관리 등이 요구된다.

2. 경제적 지속성

창녕군은 우포늪 생태관광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운영권을 지역사회에 제공한 사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순천만과는 달리 절대적인 고용수에 있어서는 부족하지만 시설의 운영권을 폭넓게 지역에 이양한 점에서는 매우 우수하다.

우포늪에서 이루어지는 생태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실제로 추정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경제적 효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조사가 수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 시설운영권 제공

- 우포늪생태관 진입지역 식당(1곳) (마을공동운영)
- 농특산품 판매장(2곳) (마을공동운영)
- 매점 및 기념품 판매장(1곳) (개인 운영)

○ 체험운영권 제공

- 소달구지 체험(소달구지 마련은 허가권 획득 개인 부담)
- 자전거(기업 기증품 100대) 운영권(마을공동운영)

○ 고용창출

- 우포늪생태관안내해설가 6명
- 우포늪환경감시원 7명
- 무기계약자 2명, 기간제 근로자 8명
- 희망근로 4명

3. 사회문화적 지속성

우포늪 생태관광의 사회문화적 지속성은 순천만의 사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포늪 소목제방 인근에 들어설 수생식물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과정에서 일부 갈등이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큰 갈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2009년에 수행된 우포늪 생태관광 시범프로그램 개발연구결과(환경부, 2009)에 의하면 지역 내 단체간 그리고 마을 간 개발과정에서의 참여 혹은 의견의 차이로 다소의 갈등이 존재하나 우포늪의 보전지향적 개발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민간단체간 협력이 지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등 비교적 사회문화적 지속성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포늪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프로

그램이 아직 부족하고 주민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고민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2010년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지로서 수립할 기본계획에서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군 마실길

1. 환경적 지속성

진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마실길 사업은 진안군 내 116개 전통마을을 포함시켜 총 215.56 km로 연결하는 일이다.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과 마을조사단 그리고 관련 단체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마실길 사업은 단순히 길을 연결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이 그들 환경을 이해하고 또 생태자원을 모니터링하는 등 지역환경보전운동으로 승화시키는 좋은 사례이다.

예를 들어, 제비모니터링 사업은 주민들로 하여금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지역 자연생태계의 변화를 생활 가까이에서 발견하게 만든 우수한 프로그램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변화를 모니터하고 생활패턴 변화를 추



그림 10. 제비모니터링(출처: 진안군청).

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비의 개체수도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2. 경제적 지속성

진안군의 마실길 사업은 경제적 효과를 측정 또는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가능한 한 늦게 관광객을 유인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우선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태)관광 목적의 전략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속성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바로 귀농인구의 변화이다. 2007년에 비해 2009년에 두 배가까운 인구가 귀농하였다(출처: 진안군청 및 강미희 2010 APEC Ecotourism Conference 발표자료).

3. 사회문화적 지속성



그림 9. 진안군 마실길(출처: 진안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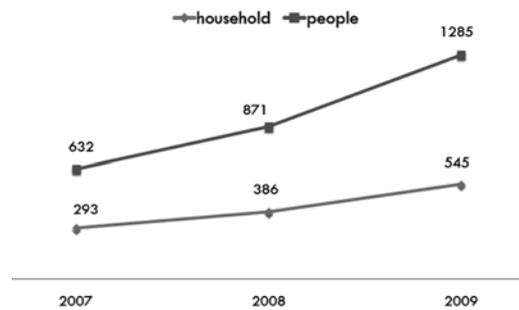


그림 11. 진안군 귀농가구 및 귀농인구 변화 추세. (출처: 진안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이용해 만든 강미희의 2010 APEC Ecotourism Conference 발표자료)

진안군은 지역주민 중심의 축제와 사진전 등의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지역 애착심을 먼저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전국지역 축제는 934개이다. 수많은 축제들이 보여주기 위한 혹은 그야말로 하나의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진안군은 마을주민을 위한 축제를 지향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사



그림 12. 진안군 마을축제 포스터(출처: 진안군청).



그림 13. 진안군 백운면 옛날사진전(출처: 진안군청).



그림 14. 진안군 지역역량강화프로그램(출처: 진안군청으로부터 사진 확보, 강미희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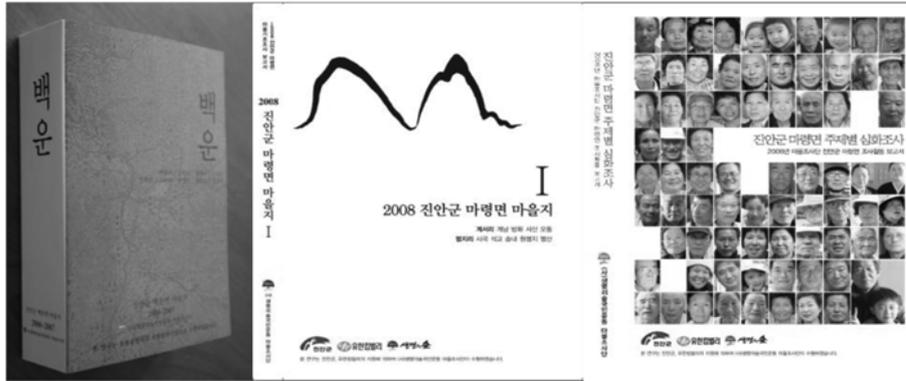


그림 15. 마을조사단 사업의 결과물로 펴낸 마을지(백운면 사례) (출처: 진안군청으로부터 사진 확보, 강미희 편집).

업들 역시 단편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지역지도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교육까지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GIS 교육 등은 지역의 지도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마을조사단 활동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발견하고 나누는 일은 진안군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참여사례로 꼽을 수 있다.